

대학로 사람들 모두로부터 긍정적 평가 받은 두 작품 「만파식적」 「죽도록 달린다」

신준봉 |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



연출가 서재형(왼쪽)과 오태석 씨

문예진흥원이 올해 새로 마련한 공연 기획 시리즈 'Best & First'를 통해 「만파식적」과 「죽도록 달린다」가 한자리에서 만나게 됐다. 'Best & First'는 지금까지의 단발성 공연 지원 방식 대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 시리즈를 통해 그 동안 초점이 없어 보였던 문예진흥원의 공연 지원 사업을 하나의 '브랜드 상품'으로 키우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오태석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현재까지 30여 년간 희곡을 쓰면서 동시에 무대 연출을 해온 우리 연극계의 몇 안 되는 연극인 중의 한 사람이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그의 작업은 연극계에서 가히 독보적이라 할 만한 위치를 굳혀가며 발전을 거듭하였다.”

1995년 10명의 연극 연구자들이 모여 펴낸 『오태석의 연극세계』의 첫머리이다. 책은 오씨의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 그의 연극이 걸어온 변화의 궤적과 추적 등 다양한 초점과 기호학·초현실주의·포스트모더니즘 등 다채로운 분석틀을 통해 제목 그대로 오태석 연극의 심층을 파헤치려 했다. 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1960년대부터 1970년에 이르는 시기에는 다양한 연극사조를 섭렵하였고,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전통의 현대화'라는 주제 아래 여러 가지 연극기법을 실험하고 있다. 오늘날 그는 20세기 한국연극을 대표하는 연극인으로서 국내외에 확실하게 자리매김 되고 있다.”

그런 오태석이다 보니, 그가 2년 만에 새 작품을 선보인다는 소식은 공

포스터
오테석의 「만파식적」,
서재형의 「죽도록 달린다」



역사와 고전, 설화와 신화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현실을 비추어보는 방식은 오씨의 장기라고 할 수 있다.
「만파식적」은 그런 면에서 오씨의 연극 공식에 충실한 작품이다.

연 담당 기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군다나 신작 「만파식적」은 한국 전쟁 중에 아버지가 납북되고, 홀로 남은 어머니는 끝내 아버지를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지난해 초 세상을 떠난, 오씨의 가슴 아픈 개인사가 녹아든 작품이라고 하지 않는가. 어쨌거나 오씨의 연극은 흥겨움이나 재미를 넘어 진지한 관심 속에 살펴 봐야 하는 분석의 대상인지도 모른다.

오씨의 신작 소식이 전해질 무렵 대학로 게시판에는 흥미로운 연극 포스터가 하나 나붙었다. 「죽도록 달린다」라는 이색적인 연극 제목 위에는 '5433초의 숨막히는 쾌속 질주'라는 자극적인 어깨 제목이 붙어 있었다. 1시간 몇 십 분에 이르는 공연 시간을 초로 환산한 게 '5433초'일 텐데, '공연 시간 내내 배우들을 뛰게 하는 연극'은 얼른 머리 속에 그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연극에 웬만큼 관심이 있는 대학로 순례자라면 「죽도록 달린다」 재공연 소식이 무엇보다 반가웠을 것이다. 신예 연출가 서재형 씨의 작품인 「죽도록 달린다」는 지난해 4월 초연돼 평단의 찬사를 받았고 동아연극상 새개념연극상을 수상했다. 때문에 공연을 놓치고 아쉬워했던 많은 이들이 연극의 실제 모습을 나름대로 상상하며 재공연을 기다려 왔다.

오씨는 올해 예순다섯 살이고 서씨는 서른다섯 살로 정확히 30년의 나이 차이가 난다. 오씨가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한 관록의 연출가라면 서씨는 이제 막 개성 있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패기의 연출가라고 할 수 있다. 오씨의 작품이 현재와 역사를 넘나들면서도 다분히 현실 반영적인 데 비해 서씨의 작품은 메시지 전달보다 다양한 감각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 가지로 이질적이고 경우에 따라 서로 대비되기까지 하는 두 사람의 작품은 문예진흥원이 올해 새로 마련한 공연 기획 시리즈 'Best & First'를 통해 한자리에 만나게 됐다. 'Best & First'는 지금까지의 단발성 공연 지원 방식 대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 시리즈를 통해 그 동안 초점이 없어 보였던 문예진흥원의 공연 지원 사업을 하나의 '브랜드 상품'으로 키우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노장과 신예의 작품을 나란히 무대에 올려 세대 간 의사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뜻도 있었다는 게 기획자의 설명이다. 어쨌든 관객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600석 규모의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과 90석 규모의 소극장에서의 동시 상연은 예상대로 선택과 비교의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해 다섯 달 간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한 문예진흥원 예술극장도 편하고 보기 좋았다.

오씨의 「만파식적」은 1월 21일부터 2월 12일까지 대극장에서 총 30회 공연됐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만파식적(萬波息笛)'은 나라의 모든 근심·걱정을 해결해 주어 국보로 삼았다는 마법의 피리. 낮에는 둘로 갈라졌다가 밤에는 합쳐지는 대나무를 베어서 만든 '어떤 파도든 잠재우는 피리'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연극 「만파식적」의 한 장면

갈라졌던 남과 북, 같은 남한 내에서도 이념과 세대, 경제적 수준에 따라 갈라진 계층 간에 분열과 대립을 썼고 이제는 마주쳐서 소리 한번 내보자는 오씨의 희망이 담긴 상징물이다.

연극은 주인공 중수가 어머니의 임종 직후 오래 전 납북돼 역시 돌아가셨으리라 여기는 아버지의 뼈라도 북한에서 찾아다가 합장해 드리마고 다짐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백두산 천지로 떠난 중수는 만파식적 설화의 주인공 신문왕을 만난다. 신문왕은 신라 감포 앞바다 대왕암에서 천지로 잠시 거처를 옮긴 선왕(先王) 문무왕을 찾아나선 길이다. 왜구의 준동이 심상치 않아 만파식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중수는 신문왕의 도움으로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남한으로 모시고 싶어한다. 하지만 북한의 이북동생들은 남한이 북한보다 살기 좋은 곳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면 아버지를 보내드리겠다는 조



건을 제시한다. 그러나 남한의 현실은 암울할 뿐이다. 노숙자들은 한 병에 1,200만 원 하는 양주를 마셔대는 부자들의 행태를 개탄하며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국적을 포기한다'는 플래카드를, 청량리 588 매춘부들은 '생존권 보장하라'는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시위를 벌인다. 급기야 중수는 지하철 구내에 비치된 양심 우산이 사용 후 제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을 비디오에 담아 남한에 양심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하지만 결국 노숙자들을 일당 고용해 바라는 장면을 연출하고 만다. 그나마 노숙자들은 일당을 받고도 공짜 우산을 포기하지 못하는 뿌리 깊은 물욕에 젖어 있다.

역사와 고전, 설화와 신화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현실을 비추어보는 방식은 오씨의 장기라고 할 수 있다. 「만파식적」은 그런 면에서 오씨의 연극 공식에 충실한 작품이다. 연극 전반부에는 북청사자놀음이 등장하기도 했다. 판소리나 마당놀이 등 전통 연희 형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온 것 역시 오씨 연극의 특징적인 대목이다. 오씨는 특유의 이야기 전개와 옛 것에 대한 집착에 대해 지난 1월 초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연극은 서양 사람들의 것이려니 여기고 배웠으나 몇 십 년 하다보니 내가 오해를 했구나, 볼 거리는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겠구나, 우리만의 문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의 볼거리를 만들 때 우리의 얘기를 나누는 데 어려움이 덜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연극 「죽도록 달린다」의 한 장면

오씨 연극의 그런 특징들은 관객들을 즐겁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 같다. 현실에서 설화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꿈에서 현실로 어렵지 않게 이어지며 럭비공처럼 튀는 이야기 전개는 기대나 예상이 깨지는 가벼운 쾌감과 함께 그 자체로 어떤 익살스러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주의적 충위를 떠나 끝없는 이야기의 연쇄 속으로 관객들을 끌고 간다고나 할까. 북청사자놀음으로 대표되는 전통 연희는 심심찮은 볼거리를 제공했고, 지하철 우산 에피소드 등은 객석의 웃음과 미소를 자아냈다. 종수 역할을 맡은 이명호의 연기는 냉소적이면서도 적당히 상식적이고 뚝심 있는 평균치 한국인을 적절하게 담아낸 것 같았다.

하지만 평단의 반응은 냉랭한 편이다. 평론가 김방욱 씨는 “오씨가 이끄는 극단 목화의 연기자들은 대부분 신인인 데다 연극 숙성 시간도 부족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이전 작품에서 보여줬던 것들이 조금씩 들어 있어 새로움도 덜했다”고 평했다. 일부에서는 연극 제목은 「만파식적」이면서도 연극의 상당 부분이 우산 반납을 둘러싼 지하철 에피소드에 치중돼 있어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 점을 예상했던 때문인지 오씨는 앞서 언급했던 자리에서 “언제든지 문제점을 지적해 달라. 나는 귀가 열린 사람이다. 또 고치는 데 귀신이다. 마지막 공연이라도 제대로 된 공연으로 건지는 것이 내 소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 오씨는 작품을 무대에 올릴 때마다 끊임없이 수정하고 고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종수 역할을 맡았던 이씨는 “공연 기간 내내 작품을 수정하다 보니 첫 공연에 비해 마지막 공연은 많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만파식적」에서도 종수의 환상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재회하는 장면은 원래 대본에는 없던 것인데 공연 시작하고 나서 삽입됐다는 것이다. 이씨는 “배우들이 직접 무대를 제작하고 의상이나 소품도 가능한 것들은 손수 준비하기 때문에 수정 작업이 쉬운 것 같다”고 말했다. 연극 제작의 전 과정에 배우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본래 목표인 연극 자체에 익숙하게 하는 방식도 오씨 고유의 스타일이다.

「죽도록 달린다」는 1월 15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26회 공연했다. 모두 2500여 명의 관객이 들어 거의 매회 앓을 자리가 없을 만큼 성황이었다. 지난해 공연을 놓친 연

극관 사람들이 대거 몰린 탓이기도 했지만 좋은 공연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반 관객들도 활발히 극장을 찾았다는 게 기획사측이 자체 분석한 ‘홍행 성공 요인’들이다.

연극은 포스터의 흥미로운 문구대로 1시간 30여 분간 쉴새없이 몰아쳤다. 프랑스의 고전 소설 『삼총사』에서 모티프를 따온 연극에서 달타냥 역을 맡은 배우 이혁렬의 질주는 안쓰러울 정도였다. 뛰어야 할 분량이 가장 많았던 그는 연극이 막을 올린 지 오래지 않아 숨가빠했고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다. 다른 배우들의 운동량도 적지 않았는데 배우마다 다른 스타일로 달리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배우들의 숨막히는 질주가 시각을 사로잡았다면 타악기를 주로 사용한 강렬한 연주와 관찰자 역할을 맡았던 강석의 고양이 울음소리는 귓전을 때렸다. 특히 고양이 울음은 강석 특유의 고양이 몸짓 연기와 함께 어우러져 기괴한 느낌마저 불러일으켰다. 연극이 관람 후 한참이 지나서도 기억에 남을 강렬한 시·청각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면 훌륭하게 성공한 셈이다.

「죽도록 달린다」의 독특한 개성을 제작진들은 로버트 윌슨의 이미지 연극에서 따온 것으로 설명한다. 소리·움직임·음악·안무·조명·대사·도구 등 연극적 요소들을 우위의 개념 없이 무대 위에 나란히 병치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어떻게 봐야 하나’에 빠지기보다 ‘감각적으로 어떻게 느껴야 하나’에 자연스럽게 쏠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연극평론가 심정순은 『한국연극』 2월호에 실은 리뷰에서 “섹슈얼리티, 욕망, 권력의 화두, 동물이라는 캐릭터와 인간 캐릭터의 환유적 병치 및 액션 지향의 감각적 연출 스타일 등”을 갖춘 「죽도록 달린다」에는 “요즘 화끈한 글로벌 코드들이 모두 입력돼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작품성과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 모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서씨는 「죽도록 달린다」의 해외 진출을 타진하고 공연 선진국들의 최신 트렌드 등을 살펴보기 위해 2월 하순 유럽으로 외유를 떠났다.

「죽도록 달린다」와 비교하면 「만파식적」의 홍행 성적은 초라할 정도다. 극단에 따르면 2000여 명이 「만파식적」을 관람했다. 30회 공연 횟수로 나누면 회당 평균 관객이 70명도 안 됐던 셈이다. 대극장 600석 좌석의 10분의 1을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국내 최고’로 꼽히는 현역 연극인의 신작 초연에 대한 관심이 이토록 미미하다는 것은 씁쓸하다.

우선 1~2월이 최악의 연극 비수기라는 점이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오씨의 연극은 공연을 거듭할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실패’를 피하기 위해 이번 초연 때는 관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역설적인 분석도 나온다. 연극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비판과 분석, 그에 따른 개선 노력은 전문가들의 몫이다. 하지만 연극 외적인 측면에서 보다 많은 관객들을 극장으로 불러들이는 유인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수용자 없는 예술을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또 일정한 의사 소통을 전제한 예술 행위라면 관객과 감상자는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단발성 기획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시리즈를 시작했다는 점은 대략로 사람들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달에는 손진책 연출의 「선의 저쪽(The Other side)」과 전무송·이호재 두 사람이 출연하는 「두 기사 이야기」(송선호 연출)가 각각 베스트와 퍼스트의 두 번째 작품으로 대극장·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

연극 「만파식적」의 한 장면



연극 「죽도록 달린다」의 한 장면